

SERMON ADVENT 1 HOPE

대림절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행을 다녀 오므로, 지난 교회력을 끝내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여행에서 돌아와 회복을 위해 Christ the King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는 보스턴에 있는 거대한 트리니티 성공회 교회 저녁 합창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의 석상에서 극도로 붓비고 장황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중심 부분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앞부분은 부드럽게 빛나는 황금빛의 곡선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측면은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양쪽에 걸친 커다란 양초와 함께 성찬식 테이블이 올려져 있고, 주변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입을 성가대는 성만찬 식탁 뒤 쪽 한 방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듯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광고 사항도 없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합창단은, 청중들이 듣는 동안 합창단들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감동적 이었습니다. 신비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관점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림절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는 동안 더 기이한 것들과 밝은 광고와 소비자 중심주의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를 신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행복한 가족 모임과 관계가 회복된 가족들의 이미지와 사랑, 기쁨 그리고 사랑을 담은 몇 가지 희망과 사랑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특징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희망에 관한 구절을 찾아보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마음에 상기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 받는 것은, "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 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실성의 불가능함과 더불어 상세하게 설명되어 집니다. 단지 낙천주의 영혼입니다. 낙천주의는 요즘 들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낙천주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절망적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논평은 적어도 우리가 들었던 뉴스 채널에서는 이례적으로 날카롭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서점들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본 책 중 단지 한 권이 긍정적이었는데 그 책은 작년에 트럼프가 예언자가 되었다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학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최고의 논문 중 하나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인 옥스퍼드 출신의 신학자인 그레이엄 워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워커샵의 주제는 "번영성과 취약성"이었습니다. 그는 '번영하는'이라는 용어에 대해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는 무엇이 뒤에 숨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번영이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부활을 쫓는 것이 그 뒤를 잇기라도 한다면 말입니다. 워드는 그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고, 번영이라고는 거의 묘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실히 중요했습니다; 믿음은 그들이 낮을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때때로 아침 뉴스가 어떨지 궁금해 하곤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가끔 "그냥 지나가는"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지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때때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물론 변영과 변성의 시기, 완전과 치유에 대한 이해가 확신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먹여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따라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림절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 해 마지막 기간을 보내는 흥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는 상당히 먼, 그곳에 대한 어떤 사랑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러한 희망, 평화, 즐거움,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자로 연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 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보다는 넓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을 품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다시 집중하는 것 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세상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희망과 낙천주의를 고대하며 이사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두운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마누스 섬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 이집트 사람들의 슬픔,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 굶주리고 있는 자들; 온 세상 길거리에 구걸하는 노숙자; 학대 받고; 애도하고; 그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을 말합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을 품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이고 공동체적 둘 다의 대림절의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희망은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세계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한지 궁금해 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잠시 다시 미국 이야기 돌아가겠습니다. 3 주 전 우리가 맨해튼에 있는 5 번가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극적이고 다소 섬뜩한 이미지의 시리즈에 도달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많은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였던 시리즈의 팟 캐스트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왕비와 용"이라 불리었고, 요한의 팜모스섬 환상에 관한 요한계시록 12 장에 별들을 임신한 여인들이 12 개의 별들을 가진 왕관과 함께 막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용은 아기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기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여자는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장소로 피신합니다. 그의 천사들과 미가엘 천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양의 피에 힘입어 용은 땅에 내던져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자를 쫓고 있지만, 그녀는 하늘과 땅의 도움으로 인해 탈출합니다.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해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든, 극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계속되는 투쟁과 투쟁을 알고 있는 피 흘린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취약한 것을 느낀다면,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우리가 시작 했던 것으로부터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합창단과, 잔잔함과, 깊은 신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리 될 수 없습니다. 팜모스의 요한은 그의 비전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에서 표현 된 신비로움을 다룹니다. 그것의 광대함은 깊은 어둠과 꺼질 수 없는 빛을 포함한다. 보이지 않는 합창단의 송고한 노랫소리 또한 교회의 음산함으로부터 우리를 들뜬 빛의 장소로 옮겨 주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성 육신 하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위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합리함과 취약성을 가지고 우리의 소박한 자아를 가지고 테이블로 모이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 희망을 제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삶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